

북한의 경제특구개발에 대한 小考
- 한국의 마산수출자유지역개발 사례연구를 통해
An Essay on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 Focused on the case of Masan Free Export Zone

이 성 수 국토연구원 동북아 연구팀 연구원

※주요단어 : 마산수출자유지역, 경제특구

목 차

- I. 서론
- II. 북한의 경제특구조성과 우리나라 사례의 의미
 - 1. 북한의 경제특구 조성의 필요성
 - 2. 우리나라 사례의 의미
- III.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배경 및 조성경과
 - 1.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배경
 - 2.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경과
- IV.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의 경제적 효과 및 문제점
 - 1. 외자도입 및 수출의 증대
 - 2. 고용유발
 - 3. 기술도입 및 기타효과
 - 4.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상의 문제점
- V.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 1.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시사점
 - 2. 결론

I. 서론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비효율적인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 인해 경제적인 편더멘탈이 극히 빈약한 상태이며, 단순한 수치비교를 통해서 살펴본 북한의 현 경제 상황은 한국의 1970년대 초반의 수준을 밑도는 형편이다.

북한의 빈곤이 지속될 경우에는 독일 통일의 예에서와 같이 향후 남북이 통일되었을 경우 남한 정부가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이 공동으로 통일전에 북한의 경제적 여건을 건전하게 하고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이 1960년대 중반이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과정에서 압축성장¹⁾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마산수출자유지역개발사례²⁾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에 있어 필요한 수출자유지역 형태의 경제특구 개발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조성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사례의 의미를 통해 북한 경제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제3장에서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조성배경 및 조성경과 등을 기술하였다. 제4 장에서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고찰해보고, 마산수출자유지역조성상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 중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가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고찰하고, 성공사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을 통해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정부의 정책적 함의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
- 1) 압축성장이란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반되는 제반 적응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수십년 만에 달성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압축성장으로 한국경제는 선진국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단기간에 걸친 업적 위주의 성장지향과 효율성 중시의 경제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측면도 있었다.
 - 2)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70년부터 2000.7.12일까지는 생산중심의 [수출자유지역(Free Export Zone)]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0.7.13일 부터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은 물론 무역·물류·유통·정보처리·서비스업 등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용어를 혼용하기로 한다.

II 북한의 경제특구조성과 우리나라 사례의 의미

1. 북한의 경제특구 조성의 필요성

북한경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 오면서 1990년 이후로 40%이상 위축된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산하였다.

또한 평양의 UNDP사무소에 따르면 북한은 1992년과 1996년 사이에 GDP가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위축은 기아문제 및 대규모 북한주민들의 탈북사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북한경제의 침체원인은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실패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1980년대까지 지속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우호적인 무역구조가 붕괴되면서 자본이 급격하게 해체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감가상각 수준을 상회하는 지속적인 투자가 없이는 기존 자본의 감소만 발생하게 되고 이는 북한경제자체의 절대적인 자본량을 누적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전반적인 산출량도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거시경제적인 상황을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K_{t+1} = (1 - \delta)K_t + I_t \quad (\text{식1})$$

$$Y_{t+1} = A_{t+1}K_{t+1}^\theta N_{t+1}^{1-\theta} \quad (\text{식2})$$

(단, K_{t+1} : t+1 기의 자본량, I_t : t 기의 투자, Y_t : t 기의 산출량,

A_t : t 기의 기술수준, N_t : t 기의 노동량(인구)

δ : 자본의 감가상각률, θ : 자본의 산출량에 대한 기여비율)

(식1)에서와 같이 이번기(t)의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t 기의 자본이 δ 만큼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음기(t+1)의 자본량은 이번기의 자본량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때 이와 연관된 생산함수를 기술수준과 자본과 노동에 관한 (식2) 와 같이 가정해 볼 때 기술수준의 향상이나 인구의 증가가 없는 자본량의 절대적 감소는 산출량의 감소로 이어짐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경제는 북한경제내부의 가용자본을 투자유인을 통해 확보하거나, 해외투자를 통해 자본량의 절대액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경제회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내부에서 자체적으

로 투자의 생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만이 북한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북한도 현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³⁾,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공단 경제특구, 금강산 경제관광특구 등 경제특구임을 대내외로 표방한 지역을 4곳 두고 있다. 이중 경제특구로서의 지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북한 경제특구의 효시로서 북한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고자 한 실험장적인 성격이 짙은 지역이다. 그러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지리적 측면에서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로서 그다지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 이유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로서 그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산업, 인프라, 기술 등에서 총체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중국의 훈춘개발계획 등 인근 접경국과의 상호 경합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⁴⁾ 또한 노동규정에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업원 고용권한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외국기업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조립·가공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은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유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1970년대 수출자유지역이라는 경제특구의 형식을 통해 외자유치에 성공하게 된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제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사업과 행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 지역을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이라고 개념규정하고 있다.

4) 김익수. 1999. "나진-선봉지대의 수송인프라 : 투자의 현황, 문제점과 가용자금원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10권 2호. p229.

5) 기업이 고용하는 노동자에게 특별한 자질이 필요해서 외국인을 고용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CPEEC(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노동법 제15조에는 고용인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노동알선기관에 한 달 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① 종업원이 직업명이 아니거나 근무중에 입은 것이 아닌 부상 또는 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③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노동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④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거나 노동규율을 엄중히 어긴 경우 등이다.

또한 종업원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복, 안전장비, 영양상태 보장 같은 사회보장적 품목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우리나라 사례의 의미

우리정부가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경제정책을 강구하게 된 것은 외국원조가 격감하기 시작한 1959년경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1960년에 마련된 경제개발3개년계획을 1961년에 수정하고, 1962년부터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함으로써 경제정책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즉 우리경제가 빈곤의 악순환과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로부터 탈피하여 자립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인식의 계기는 외국원조의 격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새로운 경제정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공업화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증대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추진의 중점은 공급측면에서는 외자도입촉진에, 수요측면에서는 수출확대에 두어졌다.

따라서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1963년에는 「수출산업촉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재일교포 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고무된 재일교포 기업인들은 한국진출을 희망하면서 대 정부관계 등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줄 창구(관리공단)와 보세가공이 가능한 공업단지 조성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197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여건을 요약해보면 광대한 잠재실업과 이로 인한 저임금, 그리고 공급부족으로 인한 초과수요현상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투자흡수능력이 높았고, 자본만 공급되면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었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유치가 절실하였고, 이를 위해 외자유치가 용이한 해안지대에 이른바 ‘특수지역’을 설치하고자 한 것이 수출자유지역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결국 수출자유지역의 설치에 우리나라가 내재적 성장⁶⁾을 통한 경제발전의 여건이 불리하여 수출촉진을 통한 경제발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1960년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남한의 이러한 상황은 현재 북한이 1980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우호적인 무역구조가 붕괴되면서 자본이 급격하게 해체된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경제력에 있어서도 1970년 당시 남한의 수출액은 8.4억달러, 수입액은 19.8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223 달러로, 북한의 1998년 수출액 5.6억달러, 수입액 8.8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950 달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⁷⁾ 그리고 외자유치 및 경제력 확보에 중요한 사회간접시설면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임으로써 1970년대 한국 경제가 모색하였던 빈곤탈출의 방향은 현재

6) 한국의 경제발전은 자본과 노동의 한계생산성향상과 기술진보에 따른 내재적 성장이라기 보다는 외연적 성장의 성격이 강하다. 즉 기존의 국내 부존자원과 기술에다 수입된 자원과 기술 등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성장으로 이러한 성장의 원천은 원재료, 노동력, 기계설비 등 생산요소의 투입증대 등에 의한 것이다.

7) 통계청. 경제관련남북배출현황

북한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II-1>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총 인 구	3,224 만명 (1970)	2,208 만명 (1999)
무역(수출/수입)	\$8.4억/\$19.8억 (1970)	\$5.6억/\$8.8억(1998)
1인당 GNP	\$223 (1970)	\$950 (1995)
철 도 총연장	5,500km (1970)	5,112km (1998)
도 로 총연장	40,244km (1970)	23,407km (1998)
선박보유톤수	920,000 G/T (1970)	720,000 G/T (1998)

III.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배경과 조성경과

1.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배경

대단위 공업 단지조성과 수출자유지역설치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의 결과로 1970년을 전후로 많은 정책이 법제화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1964),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70),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공업단지관리법(1985)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화를 근거로 하여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1970년대 이후부터는 중화학 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어 자연히 임해 공업 단지나 도시외곽 지역에 대규모 공단개발이 추진되었다.⁸⁾

외자도입 및 수출증대와 같은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의 직접투자 또는 합작투자를 유치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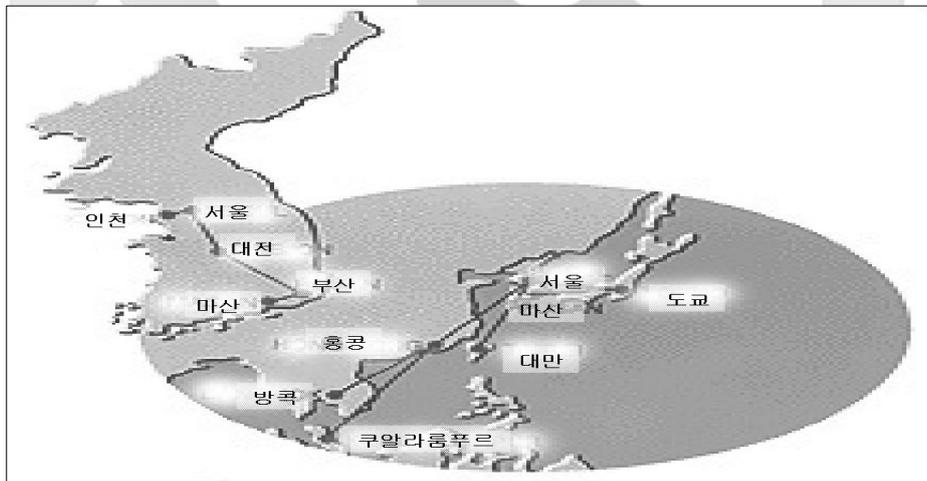
8)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설치를 위한 관련법령이 되었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법제정의 목적을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자유지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세구역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2000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명실상부하게 자유무역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목적은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정함으로써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서 언급한 제조 및 수출 중심에서 더 진보하여 무역활동 전반을 보장하는 포괄성을 가지게 되었다.

기 때문에 수출자유지역의 입지조건은 다른 공업단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출자유지역을 조성함에 있어서 특히 고려하여야 할 입지요건은 첫째, 가능한 한 임해지역으로서 항만조건이 양호할 것. 둘째,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공업용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 셋째, 노동력의 공급이 풍부할 것. 넷째, 용수의 개발 잠재력이 충분할 것. 다섯째, 공항이 인접해 있어 외국인의 왕래가 편리할 것 등이다.

이러한 입지선정의 요건에 따라 우리정부는 수출자유지역의 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남해안 일대의 마산, 진해, 여수, 목포 등을 비롯한 8개 지역을 후보대상지로 삼고 이 지역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현지답사 등 다면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마산은 남해안에 위치한 항구로서 인근에 창원, 진해, 김해, 함안, 창령 등의 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노동력⁹⁾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도시인 부산과 불과 73Km 거리에 있어 외국인이 생활을 영위하거나 사업활동을 하는데 편리하고 그 외에도 충분한 용수 및 전력 등을 공급할 여력이 있어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는데 비교적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¹⁰⁾(<표 III-1>참조)

<그림 III-1> 마산의 지리적 위치



또한 이미 마산시에서 임해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966년 7월 27일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상준설토와 산토(山土)로써 마산시 봉암동지역의 저습지와 해

9) 1970년의 마산시의 총인구는 172,574명으로 이중 남자는 83,958명, 여자는 88,616명이었다. 경제활동인구중에서 취업인구는 55,407명으로 당시 상공부의 조사보고서상에서는 대략 2만~3만 명 정도의 노동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0) 상공부 수출자유지역기초조사작업반. 1970. 「마산수출자유지역조사보고서」

면 매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조성경비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마산항이 최적지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마산에 수출자유지역이 들어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곳이 천연의 입지조건과 비록 다른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기반조성공사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¹¹⁾

<표III-1>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기반시설여건

구분	1970년 개발당시	2003년 현재	
기 반 시 설	용지	· 마산시 봉암동일대 50만평계획	· 24만평이용
	항만	· 제1, 2 부두, 중앙부두, 발전소부두	· 마산항 제3,4 부두 이용 -2만톤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가능, 부산항까지 60Km정도 인접
	용수	· 1만톤/일 규모계획	· 공업용수 1만톤/일
	전력	· 마산화력발전소, 마산변전소 총공급능력 10만Kw에서 지역수요를 제외한 6만Kw여유	· 삼천포화력발전소 →지역변전소 一워주업체, 공급 3만Kw/일
	도로	· 목포-마산-부산간 국도(2번국도) · 중강진-마산-진해간 국도(5번국도)	· 국도 외에도 4Km거리에 남해고속도로, 8Km거리에 구마고속도로 위치
	철도	· 삼랑진-마산-진주간 철도, 마산-창원-진해간 철도	· 변동없음(구마산,신마산,북마산역을 마산역으로 통합운영)
	항로	· 35Km거리에 김해공항, 사천공항	· 변동없음
	통신	· 마산시내 전화회선 5,400회선중 89.4%인 4,830선 공급중이므로, 단지 설치로 인해 300여 이상의 수요 증가 예상시 증설필요	· 단지내에만 3,000회선
	가스	-	· 경남에너지에서 LPG공급

자료 : 상공부 수출자유지역기초조사반. 1970. 「마산수출자유지역조사보고서」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발췌 <http://www.mocie.go.kr/masan/korean>

11) 마산에 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기까지 약 20여군데에 달하는 후보지를 두고 입지선정반이 데스크워크(desk work)를 착수한 결과 포항, 울산, 부산, 마산, 삼천포, 여수, 목포, 인천 등 8개 지역이 최적지로 압축되었다. 이 지역들을 두고 현지조사 등 엄밀한 선정작업에 들어갔는데 작업반에서는 입지선정의 기준을 ① 절대요건(용지, 항만, 국방상문제) ② 중요요건 인자(용수, 동력, 노동력, 수송 및 통신) ③ 기타관련 인자(공항, 관련산업 및 시설, 구역관리)로 나누고 이들에 대하여 가중치를 각각 3점, 2점, 1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입지우선순위가 울산, 포항, 인천, 부산, 마산 등이었다. 그러나 울산, 포항은 이미 중화학공업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인천은 국방상의 문제로, 부산은 용지매수의 어려움으로 제외되고 마산이 입지선정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통상산업부.1997. 「마산수출자유지역 25년사」 p52.)

2.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경과

정부는 수출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여러 조건에 부합되는 마산을 1969년 8월 5일에 수출자유지역으로 선정하고 1970년 2월 27일에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4682호)을 공포하고 약 92억 원을 투입하여 총면적(자가공장¹²⁾부지, 표준공장부지, 기타) 505,700평을 제1공구 182,878평, 제2공구 237,650평, 제3공구 85,172평으로 분할하여 단지조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석유파동으로 제2공구는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여 현재는 제1공구와 제2공구(설치당시 제3공구)만이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3년 현재는 793,010㎡(239,885평)만이 조성 운영중이다.

수출자유지역 조성당시의 제2공구가 수출자유지역으로 비지정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유지역은 국가적으로는 수출증대, 고용유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수출자유지역의 수송수요 증대에 따라 구마고속도로, 부산-마산간 4차선 고속도로의 건설을 유도함으로써 경남 및 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1970년부터 2000년 7월 12일까지는 생산중심의 수출자유지역(Free Export Zone)으로 운영되면서 고용유발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가전반의 수출증진에 기여하였으며, 2000년 7월 13일부터는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온 수출자유지역을 물류와 중계무역기능까지 수행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관한법률](2000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라 생산은 물론 무역·물류·유통·정보처리·서비스업 등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으로 확대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793,000㎡의 자유무역지역에 302,000㎡를 새로이 추가 확대하는 사업¹³⁾을 2002년 11월 21일 지정고시함으로써 선진 다국적기업들의 첨단산업 유치로 생산·수출 및 물류중심 거점 구축, 생산·물류·유통 등의 기능이 종합적으로 수행되는 복합단지 구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선진기술 및 관련산업의 직접효과로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제고 등과 같은 사업 기대효과를 예

12) 자가공장은 공장용지만을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업체의 특성에 맞게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표준공장은 생산시설만 갖추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어진 3~4층의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현재 마산자유무역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공장의 층별 규모는 가로 164.4m, 세로 20.55m, 높이 4.2m로 총 3496.02㎡(약 1,080평)이며 표준공장의 최소 임대면적은 595㎡(약 180평)이다.

13)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11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지정고시함

상하고 있다.

IV.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의 경제적 효과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치된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외국수출기업의 유치와 수출산업의 육성 및 수출의 증진, 고용의 확대, 신규기술의 신속도입 및 보급 등을 그 주요목적으로 삼고 있었음은 앞서서도 언급한 내용이다. 이 장에서는 당시 수출자유지역의 1차 조성으로 총 18만평의 토지를 확보하고 이로부터 한국 정부가 예상하였던 기대효과¹⁴⁾와 실제 수출자유지역 조성이후부터 2002년까지의 각종 지표의 흐름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1. 외자도입 및 수출의 증대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 당시 자가공장부지에 약 50개의 공장과 표준공장부지에 조성된 12개 동의 건물에 약 75개의 공장을 유치하여 총 125개 공장을 유치할 것을 기대하였다.

이때 1개 공장의 투자규모는 대략 20만 달러 이상이므로 2,500만 달러의 총투자유치액을 예상하였고, 이중 20%(대만 카오슝의 경우 1969년에 약 11.7%였다)는 내국인의 합작투자로 가정할 때 순수 외국인 투자는 2,0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2002년 현재 내·외 투자액은 2억 7,052만 달러정도로 수출자유지역 조성 당시 예상하였던 투자유치액보다 10배 가량 많은 금액을 유치하고 있다.

한편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자국시장 또는 세계시장을 확보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 기업을 통한 국내계열공장의 형성 또는 국내수출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동 지역에 설립된 기업들로부터의 수출증대 효과는 총투자액 2,500만 달러에 대하여 연간 1억 3,250만 달러 이상을 예상하였다.¹⁵⁾

14) 이러한 기대효과에 대한 정리는 상공부 수출자유지역기초조사작업반에서 작성한 마산수출자유지역조사보고서(1970)에 근거하였다.

15) 한 기업체의 매출액은 그 기업의 자본활동상황으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수출자유지역 입주 기업체의 매출액을 국내유사업종의 자기자본회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수출액 예상은 실제 1971년에 857 천 달러라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출실적을 보이다가 2002년 현재 41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어 급격한 수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또한 2002년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실적은 전국수출의 2.0%, 경상남도수출의 18.5%를 차지하였고, 무역수지흑자는 전국의 15.6%를 점하였다.

2. 고용유발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완전가동하는 경우 입주기업체수 125개를 예상하였고, 업체당 평균 고용자수 250명을 가정하였을 때 단순 수치상으로는 32,250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하였다.

특히 동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시설에서 근무하게 될 인원들을 고려할 경우에는 대만의 카오슝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고용자의 수는 예상되는 숫자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입주업체수가 1980년대부터 크게 변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자수는 1987년 36,411명을 정점으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낸다.

즉 당초 입주업체의 선정기준중의 하나인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동 지역에 조성되고 나서 1988년까지 연간 3만명이 넘는 고용을 제공하였으나, 점차 마산수출자유지역내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아지고,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따른 자본의 노동대체효과로 단순가공작업의 노동수요감소, 제품의 수명주기(Life-Cycle)에 따라 저부가가치 제품이 제3국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속적인 고용자수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⁶⁾

<표IV-1>입주기업체 현황(2003년기준:78개사)

업종	전자전기	정밀기기	금속	섬유봉제	기계제품	비금속	신발	기타
업체수	27	15	9	7	5	4	1	10

당시 수출산업의 평균 자기자본회전율은 5.31로 추산(한국은행, 1967. 기업경영분석)되었으므로 총투자액 2,500만\$에 대한 연간 수출증대효과를 추산가능하다.

16)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투자홍보팀 조열환씨와의 대담에서 발췌

이상에서 살펴본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의 경제적 효과를 조성당시 예상했던 경제적 효과와 2002년 현재 실현된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IV-2>와 같다.

<표 IV-2>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사전적·사후적 경제적효과비교¹⁷⁾

구 분	사전적 예상효과 (A) (1970년)	사후적 실적치 (B) (2002년)	증감 (B/A)
외자도입(만\$)	2,500	27,052	10.8
수출증대(만\$)	13,250	410,189	30.9
고용유발 (명)	32,250	12,011	0.4

또한 <표 IV-3>에서는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경제적 효과의 시계열 자료를 정리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의 내외국인의 투자유치와 2000년 이후부터의 수출액에 있어서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용인원 및 업체수의 면에서는 다소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산업간 조정에 의한 불가피성과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17)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의 사전적 예상효과는 대만의 카오슝수출자유지역 조성시 예상하였던 사전적 예상효과와 실적에 기초하였다.(자료 : KEPZA, 1964.7 「카오슝 수출국별통계월보」, 상공부 수출자유지역기초조사작업반, 1970. 「마산수출자유지역조사보고서」에서 재인용)

<대만 카오슝의 1969년 당시 수출동향>

구 분	당 초 예 상	실 적(1969.7월 현재)
입 주 공 장 수(개)	120	153
투 자 유 치 액(천\$)	18,000	32,000
수 출 액(천\$)	72,000	181,000
고 용 자 수(명)	15,000	39,991

<표IV-3>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연도별 투자액, 수출액, 고용인원, 업체수 추이

연도	투자액 (천 \$)				수출액 (천\$)	고용인원 (명)	업체수 (개사)
	內資	外資	(%)	계			
1971	383	4,869	93	5,252	857	1,248	22
1972	1,977	34,918	95	36,895	9,739	7,106	70
1973	4,048	78,784	95	82,832	70,374	21,240	115
1974	6,731	82,172	92	88,903	181,547	20,822	110
1975	6,185	82,810	93	88,995	174,803	22,586	105
1976	6,626	91,413	93	98,039	303,001	29,953	99
1977	10,454	93,472	90	103,926	367,918	30,719	99
1978	14,582	97,366	87	111,948	484,789	30,960	97
1979	13,438	101,570	89	115,008	600,558	31,153	94
1980	19,748	93,136	83	112,884	628,100	28,532	88
1981	31,095	86,140	73	117,236	696,341	28,016	89
1982	33,332	82,889	71	116,221	601,342	26,012	83
1983	33,368	84,812	72	118,180	706,537	30,989	83
1984	30,504	97,667	76	128,171	878,601	33,858	79
1985	29,453	96,439	77	125,892	809,319	28,983	79
1986	28,134	111,032	80	139,166	1,033,397	34,883	76
1987	26,318	137,336	84	163,655	1,399,485	36,411	75
1988	31,959	164,551	84	196,510	1,769,203	32,990	75
1989	31,828	186,177	85	218,005	1,666,689	23,076	70
1990	34,464	181,353	84	215,817	1,405,374	19,616	72
1991	35,147	182,812	84	217,959	1,463,388	18,776	71
1992	32,494	176,149	84	208,643	1,600,143	16,216	68
1993	33,302	173,820	84	207,123	1,754,193	15,753	71
1994	50,934	178,210	78	229,144	2,220,905	16,137	76
1995	54,270	181,036	77	235,306	2,400,929	14,736	73
1996	57,522	182,502	76	240,023	2,068,784	12,492	74
1997	57,019	185,495	77	242,514	2,201,332	14,682	75
1998	57,273	191,949	77	249,222	2,378,100	13,049	78
1999	56,359	192,598	77	248,957	2,799,021	12,850	77
2000	57,683	193,676	77	251,359	4,442,141	14,415	78
2001	55,255	202,390	79	257,645	4,503,445	11,995	77
2002	59,125	211,398	78	270,523	4,101,891	12,011	79

자료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인터넷홈페이지 「주요통계」 참고

3. 기술도입 및 기타효과

경제적 효과를 언급함에 있어서 수치화할 수 없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기술도입효과 및 그 파급효과라 할 수 있다.

기술도입을 일반적으로 현재 기술이 있는 소재지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 파급되어 수용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때 개발도상국에 없거나 부족한 것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을 기술도입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70년 당시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도입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마산수출자유지역내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본사(投資本社)로부터 필요한 기술의 무상이전과 함께 신기종 및 기술개발도 본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기술의 도입과 기능인력양성을 위해 투자본사를 통한 해외연수와 기술자를 초빙하여 기술을 전수받기도 한다.

<표 IV-4>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의 해외연수 및 기술자 초빙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5	누계 (1973~1995)
해 외 연 수	613	10,488
외국 기술자 초빙	645	5,791
계	1,258	16,279

자료 : 통상산업부, 1997. 「마산수출자유지역25년사」, p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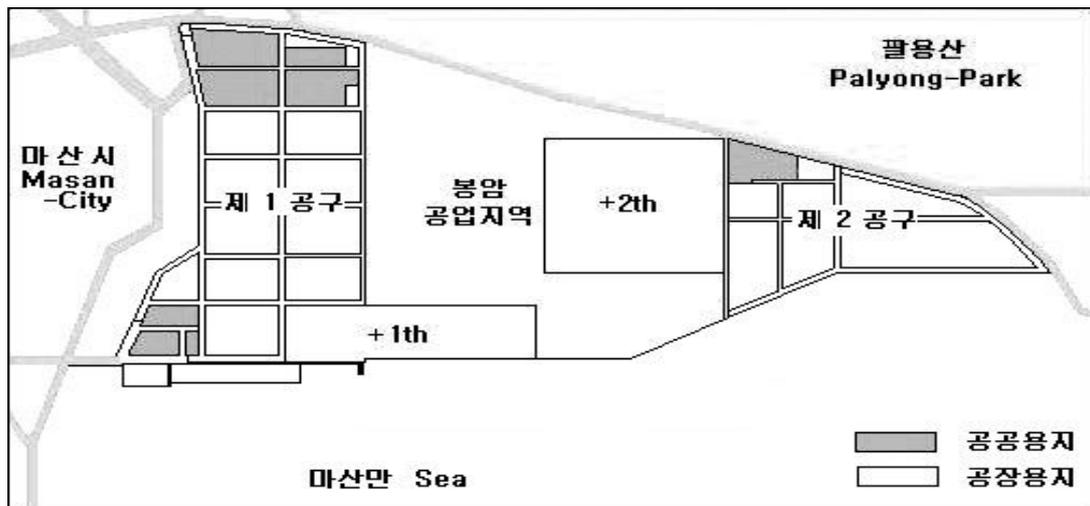
한편으로는 도입된 기술이 역외가공을 통해 역외가공업체에 파급되어감으로써 기술이전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94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24개 역외가공 위탁업체에서 실시한 기술이전 사업중 기술전수 248건, 기술자파견 132명, 기술교육과 기술지도 교육인원 3,809 명에 이른다는 것에서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4.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상의 문제점

공업단지개발의 경우 현재의 입주수요 뿐만 아니라, 향후 증가될 입주수요에 대한 예측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우도 1970년 당시에는 1, 2, 3 공구(총 50여만평)의 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중간부분(2공구)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현재 1, 2공구

(설치 당시의 3공구)가 공간적으로 분리된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자유지역내의 화물운송 및 관련업무가 일반 관세지역(<그림IV-1>에서의 봉암공업지역은 일반관세지역임)을 거쳐야 하는 등 산업활동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유무역지대확대」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실현시기가 요원한 상황이다.

<그림 IV-1> 마산자유무역지역 활용도



주 : 현재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2 공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이 그림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1th 과 +2th 는 자유무역지역 확대 예정지를 표시한 것임

또한 개발 당시 단지내의 교통수요에 대한 고려가 없이 공장부지 조성에 중점을 둬으로써 확보 가능한 여유부지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입주기업체의 사업확장 지원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대형 컨테이너의 운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수출자유지역 운영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10년이상 장기투자 업체에 대한 각종 조세의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신규투자유치에만 중점을 둬으로써 기존의 장기투자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해외홍보효과를 얻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장기투자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사항으로 법인세나 각종 세율의 추가적인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V.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시사점

북한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한국, 일본, 중국 동북부 등 동북아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이들 지역시장을 겨냥한 저임금 가공생산기지로서의 좋은 입지 여건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동 지대는 동북아지역과 유럽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한국, 일본의 입장에서 동 지대를 통해 유럽으로의 화물수송이 가능하다. 그리고 북한 노동력의 임금이 저렴하고(월 \$80-100), 주위 경치가 아름다워, 수출가공구와 관광구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가 경제특구로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관련산업, 인프라, 기술 등에서의 낙후, 주변 접경국과의 상호 경합성, 노동규정에서의 고용권한에 대한 제한 등이 미시적 차원에서의 원인이며, 거시적 차원에서는 북핵문제 등과 같은 한반도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해외투자자들의 투자결정을 유보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전술한 바가 있다.

따라서 지리적 여건에서 오는 장점과 주변 인프라 시설의 충분한 공급, 개발당시부터 현재까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투자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세계경제가공지역협회(WEPZA)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사례는 북한의 경제특구조성과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먼저 북한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한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인프라시설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막대한 자금원 확보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북한정부가 단독으로 실현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북핵문제 등의 사안은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함에 있어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정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재가입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전면적인 핵사찰 수용, 핵개발 포기 등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관련국들로 구성된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을 통해 필요한 인프라시설의 개발을 보장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및 투자 인센티브 마련은 북한정부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래에 열거하는 마산수출자유지역내의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장치들은 향후 북한지역의 경제특구에도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및 서비스로는 첫째, One-Stop Service의 제공이다. 즉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업무, 입주허가, 공장건축 허가, 수출입승인 등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관리원에서 직접 처리하여 줌으로써 외국인투자가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우체국, 세관, 파출소, 소방서, 관세사, 운송, 하역업체, 은행, 보험 등 지원업체가 역내에 상주하여 기업체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장설립에 있어서는 국내 타지역의 경우 건축허가, 대수선, 개보수, 증축 등 공장건축 관련업무는 해당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마산수출자유지역은 공장설립과 건축업무를 관리원에서 처리함으로써 해당업체에 편의를 제공한다. 이는 수출자유지역이라함은 공장부지만을 갖추어 놓고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을 원활히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조세감면 혜택이다. 국내의 일반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고도기술업종의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부여한다.(〈표V-1〉 참조)

셋째, 국내로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품목(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별도공고등)에 대해서도 마산수출자유지역 안에서는 역내가공 외에 역외가공을 전면 허용하여 입주기업체의 생산, 수출입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수출입에 있어서 각종 제한 완화조치 등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북한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와 달리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렴한 공장부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항만을 통한 물류비용의 감소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조건의 충족과 함께, 외국투자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각종 세제지원제도 및 행정서비스 등의 이른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하드웨어적인 측면과의 유기적 결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V-1> 조세 구분에 따른 감면내용 및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구 분	세계상의 혜택	입주 및 법제상의 혜택	운영상의 혜택
1970. 1.1	(적용기간: '70.1.1 ~ '84.6.30) -법인세, 소득세 · 처음 5년 100%감면 · 다음 3년 50% 감면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 5년간 100% 감면 · 3년간 50% 감면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면제	-입주허가 절차의 간소화 · 외자도입 신고(인가) 및 기술도입 계약신고 등을 입주허가 신청시와 같이 관리소에서 처리 -공장건축허가 간소화 · 공장등 건축시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소에서 허가 -무역업등록 절차면제 -해당사업에 관한 허가, 등록, 면허 등 면제 -생산제품의 수출입절차 간소화 -투자이익금 및 원금의 대외송금 보장 -노동쟁의에 있어서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 준용	-제한절차의 현지처리 · 세관, 우편, 통신, 금융 등 관련업무를 현지에서 처리 · 각종 지원시설 설치 -국유재산 저가제공 · 토지 및 공장 -후생복지시설 설치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기업부담완화 · 산업보건센터 · 기숙사 · 종합운동장 · 공동식당 -지역내 도입물품의 관세유보 -수입제한품목의 역내수입승인 -수출검사 면제
2003 현재	-법인세, 소득세 · 최초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 감면 · 다음 3년 50%감면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신설)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100% 감면 · 다음 3년 50%감면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 최초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 감면 · 다음 3년 50%감면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100% 감면	상동	상동

주 :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및 등록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경상남도세감면조례 및 마산시세감면조례에 근거한 것임.

2. 결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의 경우를 통해볼 때 임해지역의 경제력 집중을 통한 경제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북한 경제의 펀더멘탈을 구축하고 북한이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우에도 현재 임해지역에 설치되어있는 공업단지의 인프라시설을 개·보수하고 산업간 조정을 통해 공업단지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외자본의 유치를 통한 북한 경제의 펀더멘탈을 건전하게 구축하는 것은

단기간에 특정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전세계에 표방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도의 완전한 구축을 통해서도 해외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정부 자체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북한 정부는 전세계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북한지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소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1월 탈퇴한 NPT의 재가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함으로써 핵문제에 있어서 전세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현재 입주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 및 인센티브를 북한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기업들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한국정부에서도 2차대전후 푸에르토리코 산업발전의 시금석이 되었던 미국 정부의 특별세제지원¹⁸⁾과 같은 세제상의 감면조치를 북한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 민간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이 동북아지역의 중요한 산업중추로서 나아가 세계의 산업기지로서의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점진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입안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8) 미국정부는 1976년 제정된 Section 936의 법률을 통해 푸에르토리코에 투자하고 그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국기업의 이윤과 그 이윤으로부터의 이자발생액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법률은 푸에르토리코의 수출과 수입을 번성하게 하였고 특히 1987년과 1997년 사이의 수출·수입의 성장은 거의 2배에 달한다. 또한 Section 936은 산업화와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자료 : 푸에르토리코 정부 홈페이지 <http://welcome.topuertorico.org/glossary/index.shtml#936>)

참고문헌

- 김국태. 1997.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국민경제학회 추계 학술연구발표
- 김익수. 1999. “나진-선봉지대의 수송인프라 : 투자의 현황, 문제점과 가용자금원에 관한 연구”. 「동북아 경제연구」 제10권, 2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상공부 수출자유지역기초조사작업반. 1970. 「마산수출자유지역조사보고서」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970. 1. 1
-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 1970. 2. 27
- 유영휘. 1998. 「한국의 공업단지」. 국토개발연구원
- 월간조선. 2003. <인터뷰-「중화학공업 건설주역」오원철의 북한제건계획>. 1월
- 이제민. 1993. “전후 세계체제와 한국의 수출지향적 산업화”. 경제사학회
- 임종철. 1983. “한국경제발전의 논리와 성격”. 경제학연구. 서울대학교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 관한 법률 2000. 1. 12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0. 11. 27
- 최단욱. 1990. “4·19 전후의 한국경제성격에 관한 비교”. 경제사학회 통계청. 경제관련남북배울현황
- 통계청.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
- 통상산업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7. 「馬山輸出自由地域二十五年史」
- 패트리샤고우드, 신영수. 1997. 학생논단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투자여건과 법적구조”. 법과사회이론학회
- 홍중호. 1983.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지역사회에의 기여도 분석”. 제6회 경남문화연구소 논문발표회
- Paul A.Samuelson. 2003. *South Korea as a Vital Asian Business Hub*. English Netzine. 4
- Philip Armstrong, Andrew Glyn, John Harrison. 1991. 「CAPITALISM SINCE 1945」.Basil Blackwell
- 푸에르토리코정부홈페이지
- <http://welcome.topuertorico.org/glossary/index.shtml#936>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 <http://www.mocie.go.kr/masan/korean>

ABSTRACT

An Essay on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 Focused on the case of Masan Free Export Zone

Lee, Sung Su

※ Keywords : Masan Free Export Zone, Special Economic Zone

Since the 1990s, the North Korea's economic fundamental has been extremely weak. The level of North Korea's economic state is under the level of South Korea's 70s economic state.

If the situation is prolonged by both Korea's indifference, South Korea should expense the huge cost of unification as the Germany's case.

So, I think that We(South Koreans) have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by making the program to drive the North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o reconstruct the North Korea's economy, I consider the South Korea's success, Masan free export zone as the best case study in applying the North Korea region.

As you know, Special Economic Zone is the answer to the program to reconstruct the North Korea's economy.

In that case, the conditions of foundation and success for Special Economic Zone are that first, the closeness of sea, to save time to delivery goods, services and raw materials, second, the convenience of traffic, to transfer other countries by using airport, train, and ship, third, the tax credit against income tax on profits of corporation's operations in the North Korea and the interest it earns on those profits which remain in the North Korea, most of all, fourth, the removal of investment risk in the North Korea.

The last point is that both Korea's policy makers have to have the consistency and strong will to drive the North Korea's economic fundamental and South Koreans have to understand the policy about the North Korea's driving program, not the bailing out South Korea's wealth but the reduction of South Korea's burden in the case of unification.

If the Special Economic Zone program is success in the North Korea, I am sure that the North Korea will be a qualified participant in the world economy.

K C I